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할지 몰라도 공평성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굶어 죽게 만드는 체제가 과연 공평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따라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통제경제

경제가 주로 정부의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체제

## 가격기구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시장경제를 능가할 체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가 갖는 효율성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답은 가격기구(price mechanism)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가격이 자원배분 과정, 즉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서 효율성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다. 스미스(A. Smith)는 가격기구의 그와 같은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비유했다.

### 가격기구

가격이 경제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구와 같다는 것을 뜻하는 말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신호의 전달

가격이 수행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 사이에 신호(signal)를 전달해 주는 일이다. 가격의 높고 낮음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또는 생산자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가격 이외의 다른 정보전달 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격처럼 싸값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다른 매체를 찾을 수는 없다.

### (2) 유인의 제공

어떤 상품의 가격 상승은 기업들로 하여금 그것을 더 많이 생산할 유인(incentive)을 준다. 상품 한 개를 팔아서 얻는 이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늘린다. 시장경제 안의 기업들은 바로 이 유인을 좇아 열심히 생산활동을 한다. 또한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불되는 높은 가격, 즉 높은 임금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능을 습득하게끔 만드는 유인이 된다. 이렇게 모든 경제주체가 가격이 제공하는 유인에 따라 움직일 때 효율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 (3) 소득의 분배

노동의 가격이나 자본의 가격은 그것들의 공급자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 준다. 이처럼 생산요소의 가격이 한 경제 한의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일